

인천시-중국 텐진시 환경문제 해결 '맞손'

환경분야 국제학술포럼 양국 간 대기질 개선을

인천시와 중국 텐진시가 한중 양국이 당면하고 있는 환경문제를 함께 해결하기 위해 한자리에 모였다.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이 26일 중국 텐진시에서 '인천-텐진 환경분야 국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과 텐진대학교가 지난 2016년 업무협약(MOU)을 맺은 이후 양국 상호 교류로 개최돼 올해로 4번째를 맞았다.

포럼에는 양국의 환경분야 전문가들이 참석해 미세먼지·기후변화 및 물환경 관리 등 환경분야의 연구성과를 공유하고 이어서 토론회에서는 양국의 환경분야 현안 해결을 위한 다양한 공동 협력 방안을 모색했다.

27일에는 중국 환경과학원에 위치한 한·



인천시가 26일 중국 텐진시에서 '인천-텐진 환경분야 국제 학술포럼'을 개최했다.

(사진=인천시)

중 대기질 공동연구단을 방문해 양국 간의 대기질 개선을 위한 협력사업을 살펴볼 계획이다.

이번 방문을 통해 인천시의 다양한 연구

결과와 중국의 연구 성과를 접목해 대기질 개선 등 환경분야 공동 현안 해결을 위한 과학적인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권문주 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장은 "앞으

로도 중국과 환경분야 교류 협력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양국의 환경개선에 기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은둔형 외톨이·이주고령자... 복지정책에 담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수행 연구과제 선정

은둔형 외톨이·이주고령자·기후 위기 취약계층 등 최근 사회변화에 주목한다.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이 최근 연구과제 심의위원회를 열고 내년 수행할 연구과제 17개를 선정했다.

앞서 인천시사회서비스원은 지난달부터 이달까지 시·군·구 사회복지 현장 종사자 대상 연구과제 수요조사를 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요청 및 자체 개발 과제 등 모두 20편을 우선 선정하고 이 중 시의성과 정책 반영 가능성 등을 기준으로 17편을 최종결정했다.

노인·장애인·돌봄노동자 등 그간 연구

를 진행해왔던 분야뿐만 아니라 은둔형 외톨이·이주고령자·기후 위기 취약계층 등 새로운 복지사각지대에 대응하기 위한 주제를 담았다.

먼저 인천 지역 최초로 은둔형 외톨이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올해 제정된 인천광역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에 따른 연구다. 은둔형 외톨이를 발굴하고 그 실태를 분석해 지원방안을 모색한다.

올해 수행 중인 '인천시 고립 청년 지원방안' 연구의 성과를 바탕으로 은둔형 외톨이들이 다시 세상 밖으로 나오는 데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정책을 제안한다.

이어 고령화하는 이주민들의 삶도 따라가 본다. '인천시 이주고령자의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 실태조사'는 고령 이주민 수가 증가한다는 데 주목한다.

이주고령자와 장기요양요원·장기요양 서비스 제공 기관 등을 대상으로 장기요양 서비스 이용실태와 필요한 돌봄서비스가 무엇인지 찾는다. '기후 위기 취약계층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연구'도 눈에 띈다. 최근 화두인 폭우·폭염·혹한 등 기후 위기 속 취약계층의 실태와 지원방안을 다룬다.

내년 인천 시립요양원 개원을 앞두고 인천 시립요양시설 이용 수요 및 프로그램 모색 연구도 맡는다.

또 '인천형 중증장애인 활동지원 서비스 실태 및 욕구조사'를 통해 인천형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추진 17년을 점검한다.

실제적인 노후 준비 지원과 세대 교류에도 관심을 기울인다. 인천시 노인의 노후 준비 인식과 경험을 조사하고 고령 노인에게 필요한 정책을 연구한다. 여기에 더해 50+

세대와 MZ-노인 세대 간 교류를 활성화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이 외에도 '장기요양요원 처우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인천시 돌봄노동자 권리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 등 돌봄종사자 연구도 이어간다.

지난해 '인천광역시 고독사 위험계층 실태조사 연구'를 바탕으로 '인천광역시 고독사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시정계획 수립' 연구도 수행한다.

황흥구 인천시사회서비스원 원장은 "인천시 복지환경에 맞는 정책과 사회서비스 모델을 개발하는 연구는 사서원의 핵심 기능이다"며 "인천시, 군·구, 복지 현장과 긴밀히 소통하면서 인천 시민의 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이바지하는 연구 결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유정복 시장이 27일 시청 중앙홀에서 열린 '2025 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결의대회'에서 여성단체협의회 회원 등과 유치기원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인천시)

APEC·인천고법·해사법원 유치 '합심'

인천시 여성단체협의회 시민 인지도 향상 '온힘'

인천시가 27일 시청 중앙홀에서 2025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Asia-Pacific Economic Cooperation)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지지하는 인천시 여성단체협의회와 군·구 여성협의회, 인천시의회(여성의원)가 합심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결의대회에 참가한 인천시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단과 회원, 군·구 여성단체협의회, 인천시의회 여성의원, 인천시 공직자 등 250여 명은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 결의문'을 낭독하고 결집을 다짐했다.

참가자들은 △오는 2025년 한국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최지지는 국제도시 인천임을 선언하고 △300만 인천시민의 사명부권 실현을 위한 인천고등법원 유치 △국내에

해사전문법원이 없어 국부가 해외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한 해사전문법원의 인천 유치를 위해 시민의 인지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해 나가는데 적극 협조할 뜻을 밝혔다.

유정복 시장은 "인천시의 발전을 위한 여성단체협의회와 인천시의회의 적극적인 지지선언에 감사드린다"며 "인천이 2025 APEC 정상회의의 유치를 통해 초일류 국제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을 갖고 협조해 주시고 인천의 숙원인 인천고등법원과 해사전문법원을 유치할 수 있도록 시민의 뜻을 모아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는 내년 상반기 개최가 결정될 예정인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유치를 위해 체계적으로 공모 절차를 준비하고 있다. 특히 지난 5월 19일부터 오는 11월까지 인천시민을 비롯한 전 국민을 대상으로 2025 APEC 정상회의·인천고등법원·해사전문법원 인천 유치를 위한 100만인 서명운동도 전개하고 있다.

안종삼 기자

인천제2시립노인지매요양병원 그린리모델링

에너지 성능 향상 실내공기질 개선

인천시는 인천제2시립노인지매요양병원의 그린리모델링 공사가 마무리돼 치매 환자들에게 좀 더 쾌적한 치료 환경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의 '그린리모델링 사업'은 취약계층이 이용하는 공공건축물이 노후화되면 단열 저하, 결로·곰팡이 발생, 미세먼지 확산 등으로 실내 환경이 열악해짐에 따라 에너지 성능향상, 효율 개선 및 진료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인천제2시립노인지매요양병원은 '2021년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공모사업'에 선정됐었다.

총사업비 10억8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지난해 실시설계 및 행정절차를 완

료하고 오는 12월 공사 착공해 지난달 준공했다. 이번 공사로 고성능 창호 교체, 고효율 냉·난방 교체, 미세먼지 제거 및 공기정화를 위한 스마트 에어 샤워 설치 등을 설치했다.

국토안전관리원이 그린리모델링 공사 전후 에너지 절감률 및 온실가스 기대효과 등 에너지 성능을 분석한 결과, 건축물 에너지 요구량 7%, 에너지 소요량 9.8%, 온실가스 배출량 13.4%가 절감돼 에너지 성능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소나무 기준 2319그루 식재 효과가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례심사 건강증진과장은 "이번 공사로 진료환경이 개선돼 치매환자들이 보다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어 공공서비스 질이 높일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안종삼 기자

인천제대군인에 새로운 일자리를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 진로워크숍 다음달 개최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는 사회에 한 발을 딛는 제대군인들에게 나머지 한 발이 돼 취업을 도와주는 데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국가보훈부 인천보훈지청 제대군인지원센터는 다음달 25일에 인천광역시 미추홀구에 위치한 쿠팡클래스 전문기관에서 제과·제빵 원데이 클래스를 갖고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는 '진로를 찾아서' 프로그램을 기획한다.

자격을 취득하고 관련 업종에 취, 창업을 희망하기에 앞서 자신에게 정말 맞는 분야인지 취득하고 싶은 자격증인지를 알 수 있는 귀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다음달 2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진행되는 원데이 시간에는 제빵·제과 실기시험 과목인 '단팻빵' 만들기 및 '초코머핀' 만들기를 이론과 실습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김경희 인천제대군인지원센터장은 "이번 교육과정은 제대군인들이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찾아 나아가 자격증을 취득해 제대군인의 제 2의 인생 도전에 큰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안종삼 기자

안테나

인천시, 공공건축가 60명 공모

인천시가 공공건축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도시경쟁력 강화와 디자인 역량을 갖춘 우수·신진 건축가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3기 인천시 공공건축가 60명을 공개 모집한다.

인천시 공공건축가는 시민이 행복한 세계 초일류 도시 인천을 만들기 위해 공공건축물의 품질과 품격을 높여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지난 2019년 7월 도입해 현재 55명의 공공건축가가 활동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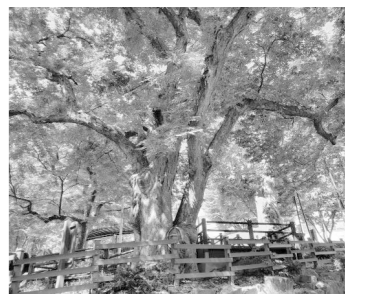
1·2기에 걸쳐 활동한 55명의 공공건축가는 112건의 공공건축의 기획설계 및 자문에 참여했다. 또 원도심 공간활용방안 아이디어 제안이 담긴 '함께 만드는 도시공간' 간행물 발간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건축과 도시공간의 공공성 확보와 전문성 강화를 위해 노력하며 도시디자인 향상 및 공간환경 개선 등의 성과를 이뤘다.

임기 만료에 따라 새롭게 위촉할 3기 공공건축가는 공공건축물 설계 참여 또는 기획 및 설계 조정 등의 역할을 하게 된다.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자격요건은 건축·도시·조경 또는 공공디자인 관련 학문을 전공한 사람으로 부교수 이상, 연구기관 연구원 또는 건축사·기술사 자격을 보유한 전문가다.

안종삼 기자

인천시, 보호수 116주 생육·안전 진단

보호수는 지역 주민에게 '정자나무'라 불리며 일상의 쉼터나 신앙의 대상으로 자리매김해왔으며 마을 공동체의 중심으로 생활과 문화를 공유해 왔다.



인천시가 역사적으로 학술적으로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있는 노목·거목·희귀목 나무를 보호수로 지정해 별도로 관리하고 있다.

현재 관리 중인 보호수는 고령화와 병충해·공해 등에 매우 취약하고 수세 악화로 인한 체계적 관리가 요구됨에 따라 수목생육확성도·주변환경에 대한 적응도·인위적 피해·안전사고 예방 및 현황 등 보호수 보호·관리를 위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이에 인천시가 지정 보호수의 보존과 관리를 위해 지난해 이어 오는 2025년까지 4개년에 걸쳐 인천의 모든 보호수에 대한 생육·안전진단 및 실태조사를 추진한다. 다음달부터 오는 9월 중 나무의사 등 전문가에 의한 일반 및 정밀진단을 통해 생육·안전상태를 점검한다. 안종삼 기자

연수구 송도동, 도로침하 관계자 대책회의

연수구가 27일 연수구 송도관리단 사무실에서 송도동 30-6번지 일원 도로침하 현장의 빠른 복구를 위해 시공사 등 관계자들과 대책회의를 열었다.

이재호 연수구청장 주재로 열린 대책회의에서는 현지 오피스텔 건설현장 시공사인 ㈜포스코이엔씨 주관으로 지하매설물 관리자인 한국전력공사 등 7개 기관이 협의해 내달 안으로 신속히 복구하기로 했다.

지난 13일 송도동 한 오피스텔 건설현장 앞 폭 20m 길이 45m 지반침하 현상에 따라 연수구는 시공사·수도사업소 등과 함께 안전펜스와 신호수 등을 배치하고 상수관로 긴급복구를 실시했다. 이후 상수도 추가 파손에 따른 긴급공사 시행과 함께 24일에도 이재호 구청장 주재로 연수구 송도관리단·경제청·남동부수도사업소 등 지하매설물 관계 기관과 복구계획 등을 협의했다.

연수구는 28일에도 실무자회의를 열고 시공사 주관으로 해당 기관별로 신속하게 하수·전기·통신·열배관·도시가스·상수도·중수도 등을 점검·복구할 계획이다. 또 도로침하 통행불편 민원 등은 송도관리단에서 전담 응대하고 시공사와 남동부수도사업소 등에서는 먼저 신속한 복구와 함께 원인 규명 등을 진행하기로 했다. 유동수 기자

김중호 인천본부세관장 'ASML' 현장 방문



김중호 인천본부세관장이 27일 경기도 화성군 소재 반도체 제조용 노광장비 AEO인 ASML을 방문했다.

이번 방문은 국가전략산업인 반도체산업 지원을 위해 장비 제조업체의 애로사항을 현장에서 청취하여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ASML은 다국적 기업으로 첨단반도체 제조용 극자외선(EUV) 노광장비를 생산하는 세계 유일의 업체다.

한국법인은 ASML의 주요시장인 동아시아 지역의 파운드리(foundry)에 이 장비를 공급하고 있다. 또한 인천공항 자유무역지역에 반도체장비 부품품 전용 GDC(Global Distribution Center)도 운영하고 있다.

유동수 기자